

- 주요 뉴스: 미국 재무장관 내년 경제 긍정적 예상 연준 일부 주요 인사는 금리인하에 신중
 - 미국 9월 소매판매, 전월비 증가세 둔화 예상. 고용 부진 부각시킬 가능성
 - 미국, 러-우 평화안 제시. 주요 내용은 러시아에 유리하다는 의견 다수
 - 일본 재무상, 외환시장 개입 가능. 일본은행 총재는 엔화의 물가 영향 언급
-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은 AI 버블 우려, 12월 금리인하 기대 약화 등이 영향

주가 하락[-2.0%], 달러화 강세[+0.9%], 금리 하락[-9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양호한 Nvidia 실적 불구 AI 거품 우려 지속되며 하락
유로 Stoxx600지수는 미국 증시 영향, 방산주 약세 등으로 2.2%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예상치 상회한 9월 고용보고서, 엔화 약세 등이 배경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9%, 1.2%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주가 하락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이 반영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 영향 등으로 2bp 하락

※ 원/달러 환율(주간) 1.3% 상승, 한국 CDS 상승

		11/21일	11/14일	전주말대비			11/21일	11/14일	전주말대비
주가	미국	6,603.0	6,734.1	-1.95%	국채 금리 10y	미국	4.06%	4.15%	-9bp
	유럽	562.10	574.81	-2.21%		독일	2.70%	2.72%	-2bp
	중국	3,834.9	3,990.5	-3.90%		영국	4.55%	4.57%	-3bp
	일본	48,626	50,377	-3.48%	CDS 5y	한국	24bp	23bp	+1bp
	한국	3,853.3	4,011.6	-3.95%		중국	48bp	44bp	+4bp
환율	달러지수	100.18	99.30	+0.89%	위험 지표	EMBI+	284	279	+5bp
	유로화	1.1513	1.1621	-0.93%		VIX	23.43	19.83	+18.15%
	엔화	156.41	154.55	-1.19%	원자재	WTI유	58.06	60.09	-3.38%
	위안화	7.1052	7.0993	-0.08%		구리	501.5	506.3	-0.95%
	원화	1,471.5	1,453.1	-1.25%		금	4,065.1	4,084.1	-0.46%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재무장관, 내년 경제 긍정적 예상. 연준 일부 주요 인사는 금리인하에 신중

- 베센트 재무장관은 내년 경기침체 진입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아니오(No)’라고 대답하고 경제 관련하여 안도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구체적으로 내년 경제에 긍정적 의견을 갖고 있으며, 지금은 강한 성장과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기초를 다지고 있다고 평가
- 아울러 연방정부 섣다운은 경제 성장을 저해했고, 금리와 연관성이 높은 주택부문의 경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 그러나 정부의 여러 주요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여 강력한 경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최근 거론되는 정부의 러-우 평화안이 지나치게 러시아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는 질문에는 결국 우크라이나와 함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답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의 대통령이라고 강조했으며, 이는 전쟁 종식을 위해 평화안을 강요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
- 한편, 보스턴 연은의 콜린스 총재는 다음 FOMC에서 급하게 금리인하에 나설 이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발언. 필라델피아 연은의 폴슨 총재는 고물가 장기화 가능성과 실업률 상승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며, 이를 위해 향후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을 주목하면서 신중한 자세로 임할 것이라는 의견 피력
- 연준의 제퍼슨 부의장은 최근 AI 기업의 주가가 급락했지만, 이는 과거 닷컴버블 시대의 IT 관련주 주가 폭락과 비교될 수 없다고 주장. 현재 AI 관련 기업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금융시스템도 안정적이라고 평가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9월 소매판매, 전월비 증가세 둔화 예상. 고용 부진 부각시킬 가능성

- 25일 9월 소매판매가 발표되는데, 시장에서는 전월비 0.4% 늘어 8월(0.6%) 대비 증가세 둔화될 것으로 추정. 이는 고용 부진을 부각시켜 결과적으로 금리인하 기대를 높일 가능성. 시장에서는 12월 금리인하를 전망(Bloomberg Economics)
- 현재 CME의 FedWatch는 12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69.4%로 제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3회의 금리인하(4, 7, 12월. 각 0.25%p)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

■ G20 정상회의, ‘남아공 선언’ 채택. 미국 행정부는 관세 소송 패소 시 대체 수단 준비

- 미국, 중국, 러시아가 불참한 가운데 열린 G20 정상회의는 ‘남아공 선언’을 채택. 이는 다자주의 정신, 모든 회원국의 동등한 참여 등을 강조. 한편, 블룸버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소송 패소 상황을 대비하여 대체 수단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 이는 대법원 패소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 미국, 라우 평화안 제시. 주요 내용은 러시아에 유리하다는 의견 다수

-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추가 확보 허용, 우크라이나 군대 제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금지 등을 포함하는 평화안 제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수용 여부의 데드라인도 설정하여 이번 평화안은 ‘최후통첩’에 가까운 상황. 여타 서방국들은 이번 평화안에 대한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

■ ECB 뮐러 위원, 당분간 저물가 지속 예상. 영국 4~10월 정부 차입액은 급증

- 에스토니아 중앙은행 총재인 뮐러 위원은 인플레이션이 당분간 2%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통화정책은 적절한 상황이라고 평가
- 한편 영국 4~10월 정부 차입액은 1168억파운드로 `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고치. 이번 주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공개할 예정인데, 시장에서는 재정 건전성 개선을 위한 증세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

■ 중국, 대만 문제 관련하여 일본과의 정상회의 거부. 일본은 중국에 대화 요청

-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한중일 정상회의를 제안했으나 중국 측이 이를 거절했다고 보도.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사건 발생 시 개입이 가능하다는 발언에 중국은 강하게 반발. 일본 정부는 대만과 관련된 입장이 과거와 동일하며, 중국과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

■ 일본 재무상, 외환시장 개입 가능. 일본은행 총재는 엔화의 물가 영향 언급

- 가타야마 재무상은 엔화 환율이 무질서하게 움직이면 개입이 가능하다고 발언. 한편, 일본은행 총재는 엔저가 수입물가와 국내물가를 차례대로 높일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계속 유념하고 있다고 발언

■ 주요 경제 이벤트(11/24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10월 시카고 전미경제활동지수, ECB 라가르드 총재 발언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26년 미국 증시, 인플레이션·Nvidia 주가 하락 등이 위험 요인 - Financial Times

(The bear case for 2026)

- 다음과 같은 요인들은 '26년 미국 증시의 약세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 첫째, 인플레이션을 주의해야 하며 특히 근원 PCE가 4%(연율)까지 오르면 금리인상 및 이에 따른 재정지출 제약 등이 현실화될 소지. 둘째, 경쟁 심화 혹은 AI 투자 열기 둔화로 Nvidia 주가가 급락하면 연쇄적 시장 반응을 초래할 우려
- 셋째, 소비 둔화·관세 부담·빅테크 중심 기업의 감가상각비 증가 등으로 인한 기업이익 감소 가능성. 넷째, 해외증시 강세 시 글로벌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조정에 따른 자금유출 가능성. 마지막 위험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무역정책을 재차 시도하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 주가는 급락할 소지

■ 미국 소비자의 체감경기 악화, 대중영합주의 강화 및 경기둔화 유발할 소지 - 블룸버그

(Are Americans Rich, Poor or Just Confused?)

-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는 대체로 소득과 자산이 증가. 그러나 대다수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경기는 이와 상이. 이처럼 소득증가와 체감경기 인식의 차이가 이어질 경우 유권자들 사이에서 경제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피해의식이 증폭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치권에 대한 대중영합주의 요구도 강화될 가능성
- 이에 정치권은 이러한 분위기를 의식하게 되고,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는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을 검토하는 상황이 발생. 일례로 트럼프는 관세정책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 타파를 위해 이미 관세환급을 시도. 다만 대중영합주의 정책이 강화된다면 실제로는 가격통제 심화, 경기성장 둔화 등의 역효과가 나타날 우려

■ 미국 국채시장, 주요 경기지표 부재 등으로 관망세 유지될 소지 - 블룸버그

(Bond Rally of 2025 Faces New Data Vacuum as Waiting Game Begins)

- 국채가격은 '20년 이후 상승세가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향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는 시장의 관심사. 최근에 전반적으로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으나, 큰 변화는 없는 상황. 특히 12월 FOMC까지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없는, '데이터 공백(data vacuum)' 기간임을 고려하면 당분간 최근 흐름 이어질 것으로 예상
- 다만 투자자들은 여전히 내년 연방기금금리가 3% 초반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 이는 국채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는 요인. 아울러 주가 하락의 경우도 안전자산 선호를 강화하며 국채 가격 상승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

■ ‘연준과 싸우지 말라’는 격언, 중국 금융시장 적용은 부적절 - 블룸버그

(Don't Fight the Fed. But Is China Worth a Shot?)

- 금융시장에는 ‘연준에 맞서지 말라’는 격언이 존재. 이는 투자자가 중앙은행의 정책과 전망을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미. 하지만, 이러한 관점에서의 중국 시장 접근은 큰 실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
- 인민은행은 자국 경제의 장기 청사진을 강조하며 경제 우려를 일축. 그러나 산업생산 둔화, 수출 및 투자 감소가 이어지고 있으며, 디플레이션 관련 위험 신호도 존재.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인하 기피는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소지. 이에 자국 경제 미래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단기적인 어려움은 극복될 것이라는 인민은행의 자신감에 동조하는 투자는 당초 기대와 다른 현실에 직면할 가능성

■ 미국 트럼프의 금리인하 시도, 신임 연준 의장 임명 후에도 난항 예상 - WSJ

(Fed Divisions Show Powell Isn't the Biggest Hurdle to a Rate Cut)

■ 미국 주요 소매업체 실적, 소비 양극화 등을 시사 - 블룸버그

(Retail Earnings Say a Lot About US Consumers — None of It Good)

■ 미국의 주택·노동시장, 서로 부정적 영향 미치는 악순환 형성 - 블룸버그

(Job and housing stresses are caught in a vicious loop)

■ 미국의 트럼프식 고립주의, 中日 간 긴장 고조 등으로 시험대에 직면 - Financial Times

(China's risky challenge to Japan — and the 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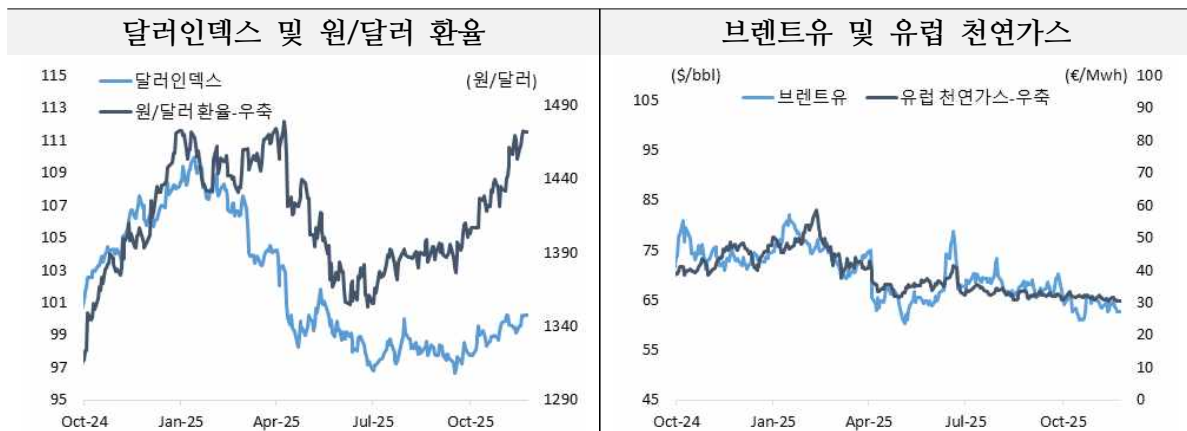
■ 디지털 자산 가격의 급락, 증시에 보내는 조기 경고 신호일 소지 - Financial Times

(The warning signal from bitcoin's fall)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